

##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기억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백서, 2012

### 새로운 사이렌과 예술교육 실험

제가 신설 문화부에 가서 먼저 생각한 것은 왜 문화가 항상 뒷전에 있는지였어요.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실용성이 우선하고 문화는 뒷전에 밀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한 것은 문화부에 새로운 사이렌을 울리는 일이었어요. 각 부처엔 긴급할 때 사이렌을 울리면서 자동차 비키라고 가는 게 있어요. 외무부에서 외빈 왔을 때 사이렌 울리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보건사회부도 말할 것도 없이 병원에서 119니, 응급차 갈 때는 길을 비켜 줍니다. 그런데 문화부는 사회에서 이거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사이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부 장관은 항상 어떤 사회에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뒷전에 있기 마련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보면 만성병이어서, 당장 고통이 덜하더라도 그 만성병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암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감기나 가시가 들어간 거에 비해 암은 치명적인 병이지만, 초기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어요. 문화부 장관 취임했을 때 나는 별판의 목수고, 튼튼한 몇 가지 기둥을 세워놓고 나가면 될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후임자들이 집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목수는 집 지어놓고 살지 않아요. 광야에 기둥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는 생각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저에게 문화부(당시 문화공보부)를 맡으라고 했어요. 그때 극구 사양했는데, 일본, 미국 등지에서 연구소에 있다가 돌아올 때 갑작스럽게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사양했고, 스스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니까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이 와있는 거예요.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집에 돌아온 건데,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장관 임명 발표가 났다고요. 그 전날 분명 거절을 했고, 누군가가 나보고 장관을 하라고 두 번째 연락을 해 와서 차마 두 번째 거절하기가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난 지금 일본의 연구소에 있다.” 그랬는데 임명이 됐어요. 거절 의사를 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거꾸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내가 책임질 테니 해버려라. 문화부를 신설하는 것인데 사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계파 따지고 정치적인 거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기 싫은 사람 시켜야지 되겠다.”

나는 당시 KBS 뉴스가 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취임사와 퇴임사를 한꺼번에 해버렸죠. “나는 광야에 네 개 정도의 기둥을 세워놓고 떠난다. 그러니 다음에 오는 사람이 살아라.” 취임 연설이

아니라 취임하면서 퇴임 인사를 한 거죠. 그때 네 기둥 중 하나가 종합적으로 예술을 다루는 전문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교육부에 일반적 교육을 받는, 교육부(당시 문교부) 통제를 받는 예술 교육을 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외국의 경우 많은 사립대학, 전문대학 있지만, 콘서바토리 같은 곳에서 많은 예술가가 나와요. 정규대학에선 예술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예술 교육이나 학문 이론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술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개 개인교습을 받는다든지 비싼 돈을 주고 레슨을 받는 게 다란 말이에요. 음악, 미술, 예능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음악, 미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편차가 아주 심해요. 또 돈도 비쌉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교육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예술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국에 그 많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생을 못 만났기 때문에 혹은 처음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수법이 그 재능을 몰라줬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재능이 그대로 사장되었느냐는 생각이 컸습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예술 교육을 합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개인 교습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교습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늦는단 말이지요. 조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술은 원시 체험이 없어요. 돌멩이 가지고 굴속에서 그림도 그리고 또 사냥하고 나서 같이 춤추고, 그리고 이것들이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 대대로 전승되는 것이죠. 요즘 문화 DNA니, 문화 유전자란 말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지요. 한국인의 생물학적 특정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학습된 민중들이나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능의 재능들이 사회문화를 통해 견습된 것이지, 핏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생물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히틀러가 얘기한 민족 우월성과 같은 것을 내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예술가가 될 수 없다거나 예술을 감상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예술 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타고난 것으로만 된다면 교육이 필요 없겠죠. 한국인의 체질과 유전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문화적으로 우리들은 가무를 즐기고 능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재능이 학습된 것이면 그것을 발휘시키려면 독특한 한국의 예술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했죠. 그런데 현행 입시제도만 봐서는 좌뇌 쪽에 치중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우뇌 가진 애들은 학교 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랬죠. 예를 들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게 정답인 게 좌뇌, 과학적 시스템이라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은 과학적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경험적인 이미지상이죠. 연상, 상상, 직관력을 가진 사람은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는 봄을 연상하지만, 물리학적으로 보면 물이 되는 것이죠. 좌뇌적 시스템과 우뇌적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전부 좌뇌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뇌가 발달한 아이들 또는 그쪽에 소질을 가진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감성은 예민하고, 사회적으로 범죄자, 문제아, 결격자가 되기 쉽다.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문화부에 5개년 계획, 더 나아가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현장을 그리게 된 것이죠.

당시 나는 문화부에 들어가서 새천년준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밀레니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1988년부터 그 생각을 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백 년 단위, 몇백 년 단위로 보면 불행한 역사였지만 천 년 이천 년 단위로 보면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해서 한반도까지 이르는 극적인 여정으로 보자면 드라마틱 하죠. 영하 4~50도 일 때 툰드라 지방을 건넌 사람들이예요. 우리는 긴 단위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제 또 다른 새 천 년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 천 년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입니다. '그 안에 예술전문학교를 세워야겠다, 그것은 2년제나 특수학교가 아니라 소위 예술 석사,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는 전문 콘서바토리를 제대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들을 프랑스나 외국에 파견해서 거기 예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일반교육과 예술 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거기 나온 사람 중에 현재 활약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정규 대학이나 콘서바토리 출신 아닌 사람들의 비율과 콘서바토리 출신 비율은 어떻게 되나, 교향악단에 아시아 인들은 얼마나 소속되어 있나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한 후 얻어낸 결론은 머리를 파고들고 가슴을 파내는 소위 새로운 한국의 예술, 문화를 키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올 거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매력이다. 군사력, 경제력은 외부의 힘으로 굴복하는 것이지만 문화의 힘은 자진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다. 자율성이다." 문화부에서도 얘기하고 취임사에서 강조했습니다. "문화부는 꿈꾸는 곳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꿈꾸는, 이벤트 장관' 이렇게 욕들도 많이 했고, 대부분의 사람이 물질제일주의, 경제제일주의 할 때 문화가 제일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예술과 문화의 힘의 위대함을 믿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 드라마틱한 학교 설립 과정 '5분'

예술학교 설립안이 나왔는데 시작부터 추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기존 대학에서 모두 반대했어요. 예술 대학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존 대학의 교수들이었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인데 예술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생기면, 자신들이 종합대학 내에 전통 국악, 미술, 음악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누가 찬성하겠어요. 공청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또 교육부 차관이 와서 문화부에서 직속 관할하는 학교를 둔다는 신문 보도 내용이 교육법에 어긋나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모를까. 그런 것은 현행법으로 안 됩니다. 모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불가능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체면에도 관계되고, 남들의 조소 거리가 될 텐데 염려스러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랬지. “왜 신동 나왔냐 하면 애를 외국 보내냐?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 그리고 돈 없는 신동이면 어떡하냐? 당신들이 유학 보내줄래?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들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키워줘야겠다. 오랜 사회적 문화적 학습에 의해 내려온 전통이 있다. 그걸 살리겠다. 식민지 치하에서 훌륭한 과학자나 예술가가 나올 수 없었을 때도 최승희 같은 춤추는 사람, 유명한 화가들, 김은호 화백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냐. 이만큼 컸으면 우리도 예술 학교가 생길 때가 됐다.” 그랬더니 기존 대학에서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해 온 것을 정말 반성한다면 교육부의 일반 교육에서는 안 되니까 특수학교를 해야지, 4~5살 때 모차르트처럼 절대 음감인 애들이 있단 말이지”하고 당시 윤영섭 장관을 설득했어요. “당신이 이것만 해주면 내 자서전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 훌륭한 연주자가 나오고 예술인이 대통령도 되고, 상상력과 직관력을 가진 이들의 은인이라고 써주겠다. 교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이 손잡으면 못 할게 뭐 있겠냐.” 그런데 장관들이 서로들 바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싫었던 건 국회에 나가는 거였어요. 게다가 문화부는 국회에 나갈 일이 없어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돼. 다른 장관은 불려나가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부르지도 않아요.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교육부 장관이 내 옆에 앉아서 필담으로 구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전략 짜자.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내 편이 되어서, 대신 내가 교육부 자문까지 해주고,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 놓고 강연까지 해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교육부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 직접 이 안건을 총리실 국무회의에 상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게 빨리 통과될 줄 알았어요. 국무회의에 좀 더 이르게 상정될 줄 알았는데, 계속 늦어졌어요. 또 당시 정원식 총리가 오셨는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으로 계실 때 문화부가 교육부에서 도서관 관할권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 이분이 총리로 왔으니까 더군다나 큰일 났다 싶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나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요. 그런데 12월에 개각이 있으니 그때까지만 있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임기까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두세 번쯤 그만둔다고 하니깐 그럼 12월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개각이 되던 그날 예술 학교 설립안이 상정됐어요. 상정된 게 뒤로 밀리고 뒤로 밀리고 해서 그날 아침에 온 거예요. 정 총리는 개각 발표를 하기로 했고,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어요. 사실 법제처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리 이론상 법제처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엽 총장이 그때 날 도와주셨어요. 전화에다 대고 “나는 법을 모른다. 법은 모르고 사람은 안다. 사람 낳고 법 낳지 법 낳고 사람 낳냐. 지금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재능을 몰라주고 왕따를 당하고 다른 섫길로 빠지는 게 얼마나 분하고 한스러운 일이나. 그러니 당신 하나만 어떻게든 법 해석해서 도장 찍어서 법제처에서 오케이하면 우리가 상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도와줘서 올라왔죠. 그런데 시간은 없고, 안건은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처와 총리실 측과 얘기해서 위로 슬쩍 바꿔놓았죠. 두 번째 정도로 오게끔. 차마 제일 위에는 못 올렸죠.

그리고 심의 들어가자마자 여러 장관이 앞의 안건들에 대해 여러 말들을 하기 전에 내가 ‘좋습니다’ 해가며 우리 안건이 빨리 오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 안건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을 보니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 거예요. 이런 건 픽션으로 풀면 정말 극적인데. 국무회의에 상정이 딱 되었는데 시간은 이십 분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윤희섭 장관이 짝 읽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 각종학교를 만들겠다 했더니 일제히 다른 장관들이 들고일어난 거예요. 체육부에서 체육학교 만들겠다는데, 동자부(동력자원부)에서 자원에너지 학과 만들자는데,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림학교 만든다고 했는데 왜 그때 안 된다고 했는데 문화부만 특권을 주냐며 반대했지요. 사실 어떤 장관이든 자기 부서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대학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미래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미래의 농림 자원, 미래의 인적 자원을 전부 확보할 수 있고 국가도 그래야 발전하는데 이걸 한 무더기로 교육부 틀에 맞추니 획일화되고 전문화 안 되고 간섭하는 게 많고. 모든 장관의 꿈이 자기 부서에서 전문적인 대학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교육법 체제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계나 청문회, 차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애써서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정원식 장관이 시계를 보니 십 분밖에 남지 않았습시다. 정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지금 청와대 올라가야 한다.” 나는 장관직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였기 때문에 개각 발표를 기다리고 할 것도 없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각 발표가 이루어지면 법안은 폐기되는 거예요. 어떤 장관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리도 없고. 선임 장관이 하던 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최후의 5분, 10분만 주소. 나한테 잠깐만 시간을 달라, 내가 아주 짧게 말하고 그래도 반대 하면 폐기해도 좋다.” 그때 연설한 것이 예술종합학교를 만들게 된, 짧지만 깊이 인상에 남겨질 수 있는 (그땐 심각하면 안 됐기 때문에 유머로)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예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문화부 장관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저 먹고살건 만들어서 재능을 줍니다. 그런데 실수한 게 있습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도저히 애를 나가라 하면 맞아 죽든지,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잘못해 가지고. 급하니까. 그런데 넌 그대로 가선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눈곱을 떼어서 애한테 하나 주면 미술가가 되고, 귀지 후벼서 주면 음악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역대 예술가 중에 그 예술적 재능을 빼놓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독하기를 한가, 체력이 강하거나 한가, 대개 예술하는 사람들은 체력 약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예술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예술이 아니면 다른 것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 년 이십 년 한 애들보다 훨씬 천재적으로 예술적 재능을 보이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 교육 어떻게 하나. 현행 교육법으론 안 된다. 현행법하에서는 예술적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농담을 했죠. “농림부에서도 농업대학 만들려고 했는데 왜 못 만들게 하느냐. 동자부(동력자원부)도 앞으로 에너지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부터 에너지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다. 농과대학에서 어린애, 기저귀 찬 애들이 밭을 매면 몇 마지기 메고, 눈에 벼를 심으면 수 마지기를 하는 그런 천재적인 농사꾼을 본 적 있냐? 여기 파면 가스 나오고 저기 파면 석유 나오게 하는 애 있냐?” 그랬더니 ‘와’하고 웃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부엔 말이에요. 6~7살 애들이 절대 음감도 있고,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애들 있단 말이에요. 농업 천재, 공업 천재 있으면 만들어라.” 그리고 바로 그때 정원식 총리가 급하니까 ‘통과된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땅 때린 게 문화부 직속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분만 지났어도! 그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지막 5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숨은 얘기지만 나는 노태우 대통령하고 재임 기간 2년을 같이 있었지만, 한 번도 독대를 요청해 본 적 없어요. 다른 장관들은 비서실을 통해 독대를 요청하고, 보통 대통령을 몇 번 만났느냐로 그 부서의 위상이 올라가고 내려가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요청한 적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한 번도 간섭한 적 없고, 단 한 건도 문화부 외의 압력이나 외부 인사를 통해 무엇을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노 대통령이 나한테 맡겼고, 나는 그 분에게 몇 번이나 사양한 끝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내 범위 내에서 했는데, 워낙에 내가 서툰 사람이기 때문에, 관직에 있어 본 적도 없고, 대학에서도 행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 주임, 학과장까지도 안 한 사람이에요.

내가 떠나는, 개각이 발표되던 그날, 마지막 국무회의의 마지막 5분 안에 통과된 법안이 바로 예술종합학교를 신설하는 법안이었죠. 그때도 그것을 대학이라고 하느냐 학교냐고 하느냐,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나는 사실 의도적으로 대학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예술학교다. 스콜라. 얼마나 좋은 말이나.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아닌 학교다. 그 대신 전문학교가 아니다. 어엿한 4년제고, 석사와 박사도 할 수 있는, 문화부가 인정하는 문화부의 대학이다." 그랬더니 명칭 때문에 외국에서 받아줄 때 안 된다, 학부형들이 대학이어야 하지 않냐, 교장이 아니라 총장이라고 해야 하지 않냐고 해서 바뀌었지만, 내가 통과시키고자 했던 학교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스템과 아웃라인, 그리고 즐기는 그 법안이었다. 다만 그때 너무 급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신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아낸 건데, 그 후에 이강숙 총장이 나보다 훨씬 사회성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타협해서 내가 양보했던 부분까지도 보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0년 지나니 각 처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들이 자기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문화부장관 처음 취임할 때 목수론을 들고나왔던 목수 자신은 사실 살아보지도 못했던 문화부지만, 그 목수의 네 기둥 중 하나가 예술종합학교였고, 네 기둥 중에서 굵은 기둥 중 떠받드는 대들보가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그때 내가 산파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학교 교사까지 지어서 늘 그 앞을 지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보면 달리 보입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설립 안 되었다면, 저 학생은 어디에 있을까? 불행해졌을까, 행복해졌을까?

"노태우 대통령 회상록에 썼듯이 나한테 감사하지 마라, 문화를 의식하고 나한테 맡겨주고 밀어준 것은 대통령이다.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과도기 때의 대통령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문화에 관한 한 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관한 한

숨어있는 공로자가 그 대통령이시고, 문교부 윤희섭 장관이시다. 그 두 분이 받쳐주시지 않았더라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마지막에 사회봉을 때려준 그 정 총리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때 같이 웃어준 동료 장관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문화부 장관이 되어서 처음 외도를 했고 어느 의미에서 평생 나는 그런 공무원이나 권력이나 관 시스템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본의 아니게 거기에서 일하면서 상처도 받고 내 일생 글만 써오던 사람인데 예외적으로 장관한 것이 나한테는 낯설고 그랬지만, 그래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은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그때 하길 잘했다 자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미래

예술학교를 구상할 때 나는 학교도 너무 요란하게 짓지 말자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서 배우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전체 틀만 주고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이 음악도 배우고...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음 속에 색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차이콥스키 <비창>을 틀어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술이 서로 오고 갈 때 다양한 뿌리 속에서 더 나은 예술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죠. 예술이 하나의 전문 획일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예술 학교의 토요일 오픈스쿨이라고 하면 연극 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음악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가 선생이 가르쳐준 것만 따르는 게 아니라 각 원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짜서, 모든 사람이 전문 예술과 타 예술과의 소위 통섭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민족 상상력의 탱크고, 저수지고, 산소 마스크여야 합니다. 이강숙 총장 당시에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총장한테도 얘기해서 가끔 산소마스크 얘기가 나와요. 나에게 있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탄생하는 5분간의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20년으로 발전해서 많은 사람이 좋은 대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 첫 번째 뜻이 오늘의 결실을 이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술종합학교의 사회 인식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가 계속 알려져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의 상상력이고 단순한 예술 학교가 아니라, 한국의 직관력의 창고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기업, 정치, 경제, 문화의 자원이라고 할 정도로 인식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한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류의 밑뿌리가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예술 간의 통섭이 좀 더 열려 있으면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름으로 종합적으로, 간학제적으로 예술의 뿌리를 공유하고 타 분야 것에서 하나의 공통된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문화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만들어주면 미술, 음악 따로 있는 일반 대학과는 다를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반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제일 반대하게 무용원과 전통예술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우겨서 무용과 국악을 넣은 건 올림픽 할 때 춤의 레벨을 봤기 때문이죠. 일본 아이들과 리듬 감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 특히 반대했던 것은 발레 같은 경우, 한국인의 체격과 체형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프랑스 발레단 보면 애들의 신체조건에 놀라게 되고, 아무래도 우리는 힘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프리마돈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국제 콘테스트도 계속 입상하고. 그 당시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거예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드러내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잘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줄리아드나 프랑스의 콘서바토리를 나오지 않더라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교육받아 세계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애들이 우리한테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간다는 것을 지금까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내 꿈이 굉장히 크고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능가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계 예술인이나 한국 예술인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런 기회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예술의 국적이 다양해질 것이고, 예술이라는 보편성 밑에는 지역성, 민족성, 역사성과 같은 개별성이 존재합니다. 석유의 사구가 있듯이 문화자원이 해저 저 밑의 사구처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시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큰 사구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끝이 없는 자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또 앞으로 문화부장관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예술의 사구 분출구가 화산이나 상상력의 호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이끌어가는 분들과 정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숙한 예술종합학교가 되기 위한 조건이자, 제2기에 들어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력하지 않고 천재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천재 의식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이 속에 갇혀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천재들만 가는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환상이 되고, 환상은 일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천재가 숨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예술 천재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재능만 있어서 들어오는 학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드 트레이닝을 해야 하며, 웬만한 사람은 들어와서 졸업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주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력은 결국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보고이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드라마를 쓸 때 이 사람 죽일까 살릴까 할 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적 상상력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왜 일반교육 기관에서 분리했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교육부가 아니라 문화부에 두었겠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술인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은 좀 달라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예술학교 학생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치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치원에 무슨 규율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교육시스템이 제일 잘 된 것이 유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율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그 안에서 창조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육 과정을 만들고 스스로 즐기고. 우뇌와 좌뇌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유치원이다. 자꾸 대학 모방하지 말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나왔다'하면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없는 유치원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유치원생이야' 이런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탄생부터가 그랬지만, 어떤 결론이나 범주, 규율, 그런 것이 정해진 학교가 아니라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학교로 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별판에서 학교를 세우고 이끌었던 초대 총장 이강숙 선생을 비롯한 뛰어난 예술가이자 개성 있는 교수진, 끼 있는 학생들이 함께 협력해줘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날개를 달아주는 미래의 비전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밖에서 바라고 있습니다.